



전북농협, '수능응원 우리 떡 나눔'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7일 전주 영성고등학교 교장 이장훈(왼쪽)에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응원하고자 수능응원 우리 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고3 수험생 300여명에게 전달된 찹쌀떡은 익산농협 떡방앗간(조합장 김병욱)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100%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쌀, 꿀, 속 등 우리 농산물을 가공한 건강식품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지역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며 "전북농협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100년 농업 구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성고등학교는 학생이 즐겁고 교직원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직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가르치는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건협 전북지부, 김장 후원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문창섭,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연말을 맞아 17일 바르게 살기운동 전주시 협의 회가 주최하는 바르게 사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25일 종합경기장 내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김장 행사에서는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등 관내 소외계층 220세대에 김장 김치 총 1100포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건협 전북지부 관계자는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 분들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를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송천2동 자생단체연합회, 사랑의김장나눔 행사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자생단체연합회는 16, 17일 양일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회장 박경희), 통장협의회(회장 정순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채봉덕), 백석제 호수공원지킴이(회장 박노신) 등 관내 자생단체가 뜻을 모아 개인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날 자생단체 회원 50여명은 직접 버무린 김장김치 400포기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관내 소외계층 200여세대에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3동 주민자치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광식)는 지난 16과 17일 양일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2021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위원회(회장 유병숙), 통장협의회(회장 이지선),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 회원 등 4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회원들은 장을 보고 양념을 직접 준비해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를 120여 세대에 전달했다.

최광식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랑담은 김장김치로 온정 나뉘요”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저소득 가구에 전달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 해바라기봉사단(회장 황의숙)은 추운 겨울철을 대비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더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장행사에서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8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정성들여 담긴 김장김치를 동절기 준비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홀몸어르신, 부자세대 등 15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 나눔을 위해 해바라기봉사단은 밀치약액을 판매해 기금을 마련했으며, 전라북도의 후원을 받아 절임배추 및 국산 고추 등 양질의 김장재료를 구입했다.

황의숙 완산구해바라기봉사단 회장은 "부쩍 추워진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 더욱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육상선수단, 소년체육대회서 뛰어난 경기력 보여

전라북도 육상선수단이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겸 제42회 전국 시도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전북 육상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이 대회에서 고창초 김은수(높이뛰기), 전라중 임사림(높이뛰기·세단뛰기), 익산자연중 김민재(창던지기), 익산자연중(원반던지기) 최재노, 전북체육중 이우민(800m) 학생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창초 김은수(멀리뛰기), 김제동초 정성훈(멀리뛰기), 남원중 진수현(원반던지기), 전북체육중 이우민(1,500m) 학생



은 메달을 차지했다. 또 전주문화초 김현우(높이뛰기), 이리초 김유민(멀리뛰기), 익산이양중 강서영(멀리뛰기), 익산자연중 김나현(원반던지기)·최재노(창던지기)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전북 육상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운동부 훈련 및 각종 대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피로 관리 노력과 전라북도육상연맹의 단합된 지도력, 도교육청의 행정·재정적 지원이라는 3박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의 안전한 훈련방안 안내와 더불어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육성종목 훈련비 20여원을 보내 육성종목 운영학교에 지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38대 이용규 회장 취임 및 제39대 정영택 회장 취임식이 11월 17일 오후 6시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개최됐다.

200여명의 동문과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신임 정영택 회장(의대 1980년도 입학·온누리안과병원장)은 "대다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학생 장학과 취업 지원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날 초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동창회 업무에 대한 수요조사 내용을 취임사 서두에 소개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아침을 거르고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도 많고, 일시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은 아르바이트를 겸하느라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고 말하고 "동문 모두

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쳐 재학생과 학교 지원에 나서서 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에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전북대 송하진지사를 비롯해 국외 안호영·이원택 의원과 군산 강임준·남원 이환주 시장 및 고창 유기상 군수가 동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수·장명수·두재균·서거석 전 총장과 학교 보직교수 등이 대거 참석했다.

언론계에서는 신효균 군산대 석좌교수와 동문언론인 회 박재홍 회장 등 다수 동문들이,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 유희철 병원장과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공무원 한중수씨 토목시공기술사 합격



남원시청 관공과에 근무하는 한중수(47·시설6급)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제25회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토목시공기술사는 학력과 경력의 자격이 충족되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시공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몇 년씩 공부만 하는 최고의 전문자격이다.

한중수 팀장은 1992년 공직에 입문 그동안 관광개발,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설계와 공사감독 등 전문적인 실무지식의 필요성을 느껴 기술사 시험에 도전했다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한 팀장은 남원시 관광개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통방식 재현, 문화관광시설의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남원예촌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한중수 팀장은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 취득으로 건설행정 전문성을 갖추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 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농민 남원시지회, 농산물 가공 꾸러미 전달

농협중앙회 남원시지회(지부장 권오정)는 새농민 남원시지회(회장 왕병석)와 17일 남원시청을 방문해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꾸러미 전달은 남원 관내 불우이웃을 돕고자 진행되었으며, 꾸러미에는 남원 부각과 전북도내 시군에서 생산된 특산물 10종의 농산물 가공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왕병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업농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꾸러미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새농민 남원시지회의 모습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장은 지역 농업·농촌과 상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교육지원청, '꿈빛한마당' 운영

익산교육지원청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근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미래사회 적응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꿈빛한마당' 대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어울누리 1층 꿈빛놀이터에서 개최됐다. 꿈빛놀이터는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다양한 스포츠 및 IT 기기를 구비해 정보화 능력 신장 및 e스포츠의 다양한 기기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 대회는 1년 동안 꿈빛놀이터에서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를 뽐낼 수 있는 자리로,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총 64명이 참가했다. 대회 운영은 한컴 타자 부문 태블릿PC 부문, 닌텐도 스위치 부문, 3D펜 작품 전시 등 4 영역 6 종목으로 진행됐다. 3D펜 작품의 경우에는 교육청 1층 로비에 전시, 교육청 직원 및 교육청 방문객의 투표로 선정됐다.

한편 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3일 간 학교급별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학생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며, "대회에 참여해 기분이 좋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경 교육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도전감과 성취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얻은 IT에 대한 많은 흥미와 관심이 앞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펼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17일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남천현 총장과 교직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우석봉사단 30여 명은 이날 완주군 선례읍과 전주시 동산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5가구를 찾아 사랑의 연탄 1800장과 생필품 등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남천현 총장은 "겨울을 앞두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작은 나눔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온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날 연탄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참고에 차곡차곡 쌓인 연탄을 보니 벌써 마음이 따뜻하다"며 "남천현 총장을 비롯한 우석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릴레이 헌혈 동참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문봉규가 최근 전주시와 관내 6개 대학이 협약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동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릴레이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비전대 총학생회는 지난 16일 비전관 혁신관과 창조관 등에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헌혈운동은 지난날 전주시와 전주지역 6개 대학이 체결한 ESG 공동실천 협약 중 Social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공헌 부문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헌혈행사를 위해 전주시는 현수막과 배너 등 홍보물 제작을 대학에 지원했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버스를 제공하고 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품권도 제공했다. /정은성 기자